

# 범법자에 얽힌 캘리포니아 로토 당첨 재산권 분쟁 범법행위의 발생 연도에 따라 재산 몰수를 판단

**우** 리 한인들 사이에서 복권 '캘리포니아 로토 게임'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화젯거리이다. 진담이든 농담이든, "내가 로토에 당첨되면!"이란 얘기를 흔히들 한다. 이혼 법정에서도 잭팟 당첨을 놓고, 재산 분배권과 배우자 생활비 청구권을 가지고 며칠씩 재판을 하는 예도 있다. 최근에 로토 게임에 관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사례가 법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1989년에 California Big Spin Lottery에 당첨이 돼, 100만 달러를 20년 기간에 걸쳐서 받게 됐다. A씨는 1997년에 결혼을 했고, 같은 해에 부인과 함께 A씨가 사망하거나 A씨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인에게 Lottery 당첨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의 합의서이지만, 이 합의서는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이 말하는 재산 성격 변경 및 양도(Transmutation)라는 법적인 문서인 것이다.

즉 A씨의 로토 당첨은 혼인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20년에 걸쳐 받게 되는 100만 달러는 A씨가 차후로 부부 공동재산과 혼합하거나 부부 공동재산으로 그 성격을 변동시키기 전에는 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

A씨가 그의 부인과 작성한 합의서는 그 당첨금을 A씨 사유재산에서 부인의 재산으로 그 성격을 그 즉시로 바꾸는 효력은 없으나 A씨가 사망하거나 그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의 부인이 Lottery 당첨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이렇게 혼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 혹은 부부 공동재산의 성격과 그 소유권을 가정법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 조항에 부합한 재산변경 및 양도(Transmutation)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야만, 재산의 성격과 소유권 변동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도 이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검토되면서 Lottery 당첨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결정하는 기막힌 일이 생겼으니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A씨는 Lottery에 당첨되고 결혼까지 한 이후 2002년에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그가 관렷던 마약 밀매 및 제조 혐의로 구속됐고, 그의 재산에서 4300만 달러를 몰수한다는 형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차후 재산 몰수 명령은 A씨의 Lottery 당첨금을 몰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A씨의 부인은 1997년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 A씨의 Lottery 당첨금은 합의서 내용대로 A씨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재산이 아니라 부인의 재산이며 이를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판결에 앞서 죄가 없는 배우자(Innocent Spouse)의 재산은 A씨의 재산 몰수 명령에 저촉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함을 인정했다. 단, 판사는 합의서의 내용대로 A씨에게 실제로 범법자로서 형사 구속 및 처벌을 받게 된 일이 2002년에 발생했고, 합의서의 내용대로라면 A씨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Lottery 당첨금에 대한 재산권이 A의 부인에게 이전돼야 한다. 그러나 A씨 부인이 합의서에 따라 재산을 양도받기 전에, A씨 재산 몰수권이라는 형사법 명령이 2002년에 떨어졌지만 A씨 재산 몰수권의 근간이 되는 범법 행위가 1992년부터 발생했으므로 1992년 이후 A씨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재산 몰수권에 저촉을 받아 압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1997년 A씨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 이미 A씨의 Lottery 당첨금은 국가의 재산 몰수권에 의해 국가 소유가 되어버려, 1997년 합의서 내용에 따라 A씨가 부인에게 건네줄 재산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로토에 당첨되면..." 법적으로도 이리저리 잘 생각해야 할 세상에 사는 것 같다.

문의 213-251-5401



김 신혜원  
(가정법 전문 변호사)